

皇龍寺址發掘調査豫報

秦弘燮

皇龍寺가 新羅의 國家的 大刹이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草創의 時期가 眞興王十四年(五五三)으로 佛教傳來以後 興輪寺에 이어 다음가는 古刹이었을 뿐 아니라 敍建因緣 또한 殊異하였다. 羅代에 建立된 數 많은 寺刹 가운데서 皇龍寺만큼 豊富하고 昭詳한 記錄을 남긴 곳도 없거니와 草創부터 周圍墻宇建立^②, 丈六佛像造成^③, 金堂造營^④, 九層塔敍建^⑤ 銅鐘鑄造^⑥에 이르기까지 造營年代를 明示하였고 그 沿革에 關하여 高麗朝에 이르기까지 記錄이 끊이지 않고 있다. 處處에 「王幸」의 記錄이 있고 同時에 이곳 丈六佛像과 九層塔은 新羅三寶였다고 하니 眞平王聖帶와 아울러 三寶中 二寶가 皇龍寺에 있었음은 분대 寺格이 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遺址도 比較的 잘 남아있어 中門, 塔, 金堂等의 礎石은 大部分 原位置를 떠나지 않았으며 耕作으로 因해 移動이 있는 하나 廻廊 講堂址의 礎石도 遺存하여 大體의 規模를 推察할 수가 있다. 그러나 皇龍寺에 對한 古은 高麗 高宗時 廢寺後^⑩ 이루어진 일이 없었고 耕作과 侵蝕으로 因한 變更이 繼續되었으니 柱礎의 除去, 移動, 民家의 建立等이 그것이다. 日人 藤島亥治郎博士는 皇龍寺의 重要性에 着眼한 바 있어 一九二七年 以來 二回에 걸쳐 寺址 全域에 對한 調査를 施行한 바 있었고 그 結果當時의 現狀과 이를 根據로 한 復原圖를 作成한 바 있었다. 後 그 以上の 調査가 進行된 바 없이 消極的인 保護措置 卽 寺域內 土地의 國有化, 民家의 撤去等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保護措置에는 副作用이 따르기도 하였으니 塔址心礎石위에 建立되었던 民家의 撤去로 그 밑에 藏置되었던 舍利莊嚴具가

盜難 當하는 事態가 發生한 것이 그것이다.

二

皇龍寺址의 規模나 伽藍配置의 正確한 判斷이 必要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第一級에 屬하는 重要寺刹址에 對한 保護措置를 爲하여도 더 많은 資料가 要請되었다. 그리하여 一九六九年 七月 文化財管理局은 梨花女大 博物館과 合同으로 皇龍寺址에 對한 第一次 發掘調査에 着手하였다. 爲先 寺域四至로 推定되는 區域內의 全域 二萬餘坪에 對한 詳細한 實測圖를 作成하였고 이에 依據한 伽藍配置의 把握과 藤島博士의 調査記錄을 參考하여 發掘地域을 選定하였다. 中門址, 塔址, 金堂址는 礎石이 原形을 保有하고 있었고 金堂北便에 있었을 講堂址도 남은 礎石은 적지만 地形으로 보아 그 遺址를 推定할 수 있었다. 이 地帶 卽 皇龍寺伽藍의 中心部는 塔址, 金堂址가 모두 國有化된 것도 그 保存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一次發掘의 對象地는 當初伽藍中心部를 떠나서 外廓地帶中의 어느 한 地域을 擇하려 하였으나 外廓地帶의 狀態가 매우 混亂되어 莫然한 狀態에 있었고 礎石等 遺構의 移動이 甚하여 發掘後에도 原狀把握이 困難하리라고 判斷하였다. 오히려 原狀이 確實하게 남은 地域부터 着手하여 原狀을 把握하여 두는 것이 次後 發掘에서 不確實한 狀態가 나타나더라도 復原的인 考察에 根據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判斷下에 選定한 對象地가 講堂址로 推定되는 地域이었다. 講堂址에 對하여도 藤島博士가 이미 調査하여 復原圖까지 作成하고 있으나 當時의 調査는 地表調査에 그쳤고 그것도 二個의 露出된 礎石을 根據로 하였던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金堂中心 北約 一六〇餘尺地點에 東西로 石牆이 있고 다시 北方約 一二四尺 떨어져서 다른 石牆이 있다. 그 사이에 軸에서 若干 西쪽으로 떨어져서 二個의 遊離礎石이 있다. 講堂址로 본다. 講堂의 存在는 史記에 明白히 이름을 남기고 있으나 現狀이 이와 같이 崩壞狀態에 있음은 不可解다. 土壇조차 一片도 남지 않았었다.

계속하여 復原論에 있어서 는

講堂은 오직 二個의 礎石이 있으나 매우 移動되어 北廻廊 前柱列에서 北 東 尺六三尺前後의 地點에 있다. 여기서 講堂은 十一間 四面、寸尺은 金堂에 準한다고 假定하면、云云하고 있다.

調査當時에 位置를 明示한 자세한 實測圖도 없었을 뿐 아니라 二個의 礎石만 가지고 十一間 四面의 復原圖를 作成하는 自體가 無謀하였으니 그 後 數十年이 經過한 지금 그가 指目한 二個의 礎石이 果然 現在의 어디에 位置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으므로 藤島博士의 論文은 講堂址에 關한 限 그다지 參考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今般發掘에서는 露出된 礎石을 根據로 發掘을 進行할 수 밖에 없었다.

今般發掘은 講堂址와 北廻廊址의 一部에도 손을 댔으나 여기서는 講堂址에 關해서만 記述하고 廻廊址에 對하여는 그 全貌가 밝혀진 다음 別稿로 다루려 한다. 또 講堂 自體의 復原的 考察도 있어야 할 것이나 이것도 여기서 省略하고 發掘結果에만 限하고자 한다. 復原的인 考察은 講堂址에 對한 좀 더 細密한 調査와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고 廻廊址와 도 關聯이 있겠고 伽藍의 全體 規模가 밝혀진 다음에 試圖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三

皇龍寺講堂에 對하여는 續高僧傳(唐道宣撰)慈藏傳에

「又請入室一夏講攝大乘論既又於皇龍寺講菩薩戒本 七日七夜天降甘露雲霧奄靄覆所講堂」

과 三國遺事 慈藏定律條에

「一夏請至宮中講大乘論又於皇龍寺演菩薩戒本 七日七夜天降甘露雲靄靄覆所講堂」

等이 있으니 이들은 「講堂」을 明示한 記錄이 되었고 「講堂」의 明示가 없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記錄은 모두 講堂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卽 三國史記의

眞平王三十五年(六一三)秋七月隋使王世儀至皇龍寺設百高座邀圓光等法

師說經」

「善德王五年(六三六)三月王疾醫禱無效於皇龍寺設百高座集僧講仁王經 許度僧一百人」

「憲康王二年(八七七)春二月皇龍寺齋僧設百高座講經王親幸聽之」

同十二年(八八七)夏六月王不豫赦國內獄因又於皇龍寺設百高座講經」

「定康王二年(八八九)春正月設百座於皇龍寺親幸聽講」

「眞聖王元年(八八九)設百座皇龍寺親幸聽法」

等의 記錄이다. 이 記錄에서 보면 國家의 大事가 있을 때는 皇龍寺에서 百高座를 設하여 祈禱의 儀가 있었으니 다른 寺院에서 百高座를 設한 記錄이 없음을 보면 皇龍寺에서 있었고 주로 皇龍寺講堂에서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며 累累히 보이는 王幸의 記錄은 이 寺刹의 比重을 말해 주는 것이다.

四

發掘前 講堂址로 推定되는 地帶의 狀況은 原來 田으로 있었으나 數年前 논으로 만들기 爲하여 削土한 일이 있어、 이때 多數의 瓦片과 方磚이 出土된 일이 있었고 芬皇寺로 通하는 寺址東側 道路邊에는 民家 一棟이 서 있었다. 이 一帶의 耕作地는 國家에서 買入하여 國有化되었으나 民家 一棟이 撤去되었을 뿐 緣故者에 依하여 耕作이 繼續되고 있었다. 金堂址 北端柱列에서 約二五二尺北方에 東西로 延長되는 돌더미가 있고 金堂址에서 이 돌더미에 이르러는 一帶가 國有化되었다. 東側은 芬皇寺로 가는 道路가 南北으로 뚫리고 그 넘어 東쪽 一帶는 논이다. 西側에는 民家가 五六棟 있을 뿐 全部 田畝으로 되어 있다.

講堂址로 推定되는 一帶에는 若干 北쪽으로 치우쳐서 圓形柱座가 조각된 礎石 二個와 그 附近에 二、三個의 礎石이 土中에 묻히고 東端 道路가 가까이 礎石이 一部 露出되어 있었다. 이 一帶는 오래 前부터의 耕作으로 寺址 原形의 攪亂이 當然히 豫想되었고 藤島氏의 論文中에서 不動한 原位置의 礎石을 指摘하지 못한 까닭이 여기 있다고 豫想되었고 더우기 最近의 作畝과 이 結果 多數 瓦磚의 出土는 이러한 疑懼을 한층 더하



圖 1. 皇龍寺講堂址敷塼狀態

平均 一八尺이 되었다.

이 礎石間의 距離를 基準으로 第一列에서 北으로 礎石을 探索한 結果 다시 새로운 礎石이 發見되어 第一列에 平行되게 幅二m의 第二列 트레치를 東西로 築은 結果 礎石이 不確實한 第八、九石을 除外하고는 第一列 礎石과 等間隙으로 礎石列이 出現하였다. 그 中 第四第六石 周圍에는 若干의 敷塼이 남아 있었고 方形과 圓形의 柱座가 加工된 것도 있었다. 礎石의 南北間 距離는 모두 一三尺이었고 第一列과 第二列의 礎石들은 모두 秩序整然하여 各列 礎石間의 距離나 第一列과 第二列의 各 礎石間의 距離도 等間隙임으로 모두 原位位置에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트레치는 講堂의 正面規模를 알기 위하여 西로 延長하였으나 第一、第二의 礎石列과는 다른 柱礎가 露出되어 이는 廻廊의 連接部分으로 推定되었음으로 講堂의 西端을 確認할 수 있었고 東端에서도 이에 相對되는 礎石이 露出되어 講堂前面은 九間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으로 主力을 側面間數를 찾는 일에 쓴게 되었다. 第一列과 第二列과의 礎石間隙을 따라 北으로 새로 운 트레치를 第一、第二列과 平行으로 築은 結果 모두 不動의 礎石이 露出되었다. 即 第三列에서는 東西兩端에만 있고 그 사이에는 비어 있었는 바 後述하는 바와 같이 그 理由가 따로 있었던 것 같다. 第四、第五列에서는 第四列、第五石만이 없어졌을 뿐 모두 原位位置에 남아있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더우기 第三、第四、第五列의 西端附近에는 敷塼마저 完形을 남긴 부분이 相當히 남아 있었다(圖2).

以上에서 없어진 礎石은 四個뿐이어서 講堂址의 復原은 充分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가능성이 認定되었다. 특히 注目된 바는 第三列 發掘時

게 하였다. 따라서 露出된 礎石에서 根據를 찾을 수 밖에 없어서 金堂址 北端柱列에서 九七·二尺北方 芬皇寺通路 道路邊가 사이에 露出된 礎石에 基準을 두고 東西로 幅二m의 트레치를 築기로 決定하였다. 即 前記 礎石에서 西로 트레치를 延長시킨 結果 前記 基準礎石 西側의 一石이 없어졌을 뿐 나머지 九個의 礎石이 地表下 約三〇cm에서 露出되었다. (이 礎石列은 第一列이라고 부르고 東에서부터 第一礎石、第二礎石으로 하여 第十礎石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따라서 第一列에서는 第二礎石이 없어진 것이다.)

西쪽으로 갈수록 原形保存狀態가 良好하여 第六과 第七礎사이 트레치 南端에 걸쳐서 敷塼이 깔려 있었고(圖1) 第九礎石을 中心石으로 礎石과 的 接續方法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敷塼의 原形이 露出되었다. 이와 같은 原形의 出現은 거의 完全히 攪亂되었을 것이라는 推測을 뒤엎었고, 同時에 講堂址의 全貌를 把握할 수 있으리라는 밝은 展望을 주었다. 第一列의 東西兩端礎石 거리는 約 一六二·五尺이니 礎石과 礎石의 距離는

第六石과 第七石 사이에서 트렌치 北쪽 線에 卽 南面에 三枚로 된 全長 九·六尺의 長大石遺構가 나타났고 그 兩端은 北으로 延長되어 있었다. 長大石의 幅을 따라 北으로 發掘을 擴大한 結果 西端에서는 當初에 露 出된 돌은 「字形」으로 北으로 延長되고 다시 若干遊離된 長大石이 있어 西側 現長이 七四尺이었으며 東端에서는 亦是 짧게 「字形」으로 北으로 꺾기 고 若干 遊離된 二個의 長大石이 있어 東側 現長은 八·八尺이었다. 北 쪽에는 若干 안으로 移動된 長大石一枚와 一八尺 떨어져 北쪽에 또 하나 의 長大石이 있어 北側을 마감하였던 石材로 推測되나 더욱 細密한 檢 討가 必要할 것 이다. 이 트레 ン치는 같은 幅으 로 北으로 延長 하였으나 다른 遺構가 없는 것 으로 보아 講堂 內에 있었던 어 떠한 施設이 있 었던 곳으로 보 였다.



圖 2. 皇龍寺講堂址全景(西方에서)

發掘은 講堂 의 南北間의 規 模를 밝히기爲 한 努力에 集中 되어 爲先 西端 礎石에서 廻廊 接續部를 包含 한 곳에 幅四m 의 트렌치를 南 北으로 넣었다.

討가 必要할 것 이다. 이 트레 ン치는 같은 幅으 로 北으로 延長 하였으나 다른 遺構가 없는 것 으로 보아 講堂 內에 있었던 어 떠한 施設이 있 었던 곳으로 보 였다.

그 結果 西端礎石에서 約 五尺의 距離를 두고 第三列 附近에서 부터 北 으로 延長되는 長大石列이 二、三重으로 나타났고 講堂쪽의 長大石列은 北으로 뺀다가 第五列 礎石心에서 約 八尺의 距離를 두고 東으로 直角 으로 꺾이고 있어 이것이 講堂周圍에 돌렸던 構造物임이 틀림없었고 이 長大石列 南端은 約 二十八尺 切斷되었다가 다시 南으로 延長되어 第一 列 礎石心에서 約 八尺距離를 두고 東으로 延長되고 있어 講堂의 規模 가 大體로 짐작되어 前面 九間 側面四間으로 推定되었다. 이 長大石列 과 平行되던 또 하나의 長大石列은 北으로 延長하다가 第五列 礎石心에서 約 三尺南쪽의 地點, 卽 西端에서 北行하다 東으로 꺾여 延長된 講堂에 附屬된 長大石列의 北端에서 約 十一尺 南쪽에서 西로 直角으로 꺾이고 있어 廻廊에 附屬되었던 構造物로 생각되었다.

五

以上으로 講堂의 規模가 밝혀졌으나 前記 講堂內에 있었던 施設로 보 어지는 遺構에 對한 考察을 試圖해 보고자 한다. 長大石으로 區劃지워 진 이 遺構에 對하여는 앞으로의 檢討를 기다려야 할 問題이지만 現況 만 가지고 보아 注意되는 點은

- 1、大體로 方形遺構인 點
- 2、이 遺構가 講堂 東西中央에 있지않고 一間 西側으로 치우쳐 있는 點
- 3、講堂의 여러 礎石列中 이 遺構의 前面에 該當하는 第三列은 東西 兩端에만 礎石이 있는 點

等이다. 이와 같은 特徵은 앞으로 調査가 進行됨에 따라 復原의인 考察 과 아울러 밝혀질 것이지만 方形遺構에 對하여는 이곳이 講堂일진대 講 壇 或은 佛壇의 施設이 있었을 법한 일이다. 이 施設이 講壇이나 佛壇 이나를 決定할 根據는 지금은 얻을 수 없지만 皇龍寺에서 講經의 記錄 이 많음을 보겠고 特別히 史記에 頻繁히 보이는 「設百高座」의 記錄과 關 聯이 있지 않나 推定하여 본다. 「設百高座」가 皇龍寺에서 있었다고 하 였을 뿐 「講堂」이라는 明文은 없으나 講經의 行事가 講堂에서 있었을

것은 곧 짐작되는 바이니, 그렇다면 柱礎가 整然한 이 講堂內部에 圓光 法海等諸高德을 請하여 講說하였을 講壇址로 볼만한 다른 遺構가 없음으로 있어야 할 講壇의 遺址를 이곳에 比定하여 본 것이다. 이 遺址가 第四柱列과 三柱列 사이에 있고 그 前面인 第三柱列은 東西兩端에만 柱礎가 있을 뿐이어서 그 前面에 기둥없이 넓은 공간을 둔 點도 講壇設置에 따르는 配慮가 아닌가 생각된다. 前面開放의 設計는 勿論 이를 佛壇이라고 하더라도 可能한 일인 하지만 이 遺址가 西方에 偏在한 點은 佛壇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講壇에 比定하여야 그 理由가 說明될 것으로 생각되며 金堂의 主尊佛의 位置와의 關係도 考慮될만한 일이다 아닐까.

如何든 이 遺構의 性格은 앞으로 좀더 면밀한 調査가 있는 다음 決定 지워질 일이지만 最近에 이르기까지 數次의 災厄을 겪으면서 이 말들이 라도 考察의 根據가 남아 있음은 多幸이라 할 것이다.

六

發掘은 西方으로 延長하여 北廻廊址의 遺址를 探索하였고 이와 對稱 되는 東側에도 講堂과 連接되는 地點에 東으로의 延長이 想定되는 礎石이 있음을 確認하였다. 또 講堂 西端과 廻廊과의 連接部에 本建物밖으로 別途의 附加遺構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圖3).

發掘途中 出土된 遺物은 많지 않았으나 少量의 鐵製 遺物을 除하고는 모두 瓦搏들이다. 瓦搏에 對하여도 앞으로의 檢討를 거쳐야 하겠지만, 搏은 모두 無紋方搏이었고 瓦當은 新羅에서 高麗에 걸치는 것들이다. 羅代의 것은 蓮花紋이 大部分이며 麗代것은 日暈文이 大部分이다. 鐵製 遺物은 風鈴으로 推測되는 破片을 包含한 少量이나 앞으로의 檢討가 必要하다.

七

以上 極히 疎略한 報告文이었으나 皇龍寺址 全貌의 把握은 앞으로 發掘이 繼續되어야 할 것이다. 耕作으로 因하여 많은 礎石이 移動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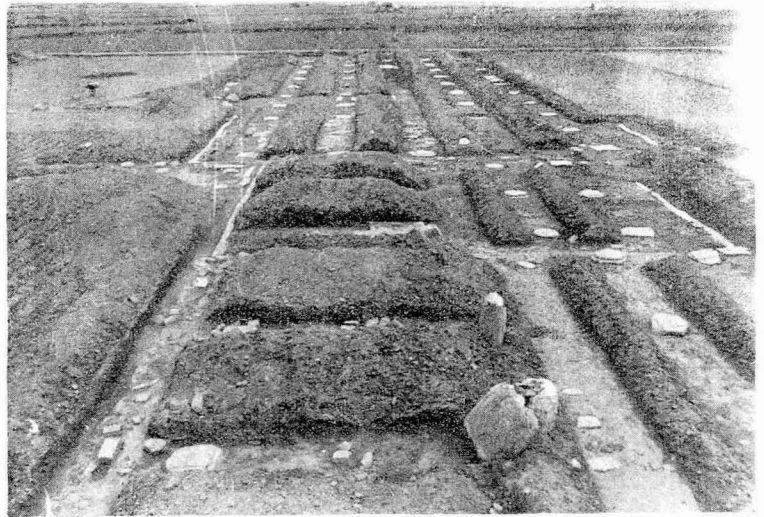


圖 3. 皇龍寺講堂 및 北廻廊址一部(西方에서)

나 二萬坪 가까이 全域에 對한 計劃的인 發掘이 이루어진다 면 相當한 部分의 原形이 나타 나리라고 생각 된다. 伽藍中心 部 東쪽 에는 處處에 礎石과 長大石이 박혀 있어 東廻廊의 原形도 期待할 만하며 中門址 에도 數個의 礎石이 原位置에 남아 있어 復原의 考察이 可能 할 것 같다.

原位置에 남아 있었음은 多幸한 일이며 二次的으로 周圍에 對한 發掘이 이루어진다면 規模가 完全히 드러날 것이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部分이 남아 있음으로 앞으로의 宿題가 많다고 할 것이다.

遺物도 遺構自體와 發見位置와의 連關下에 면밀한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고 移動된 礎石의 原位置復原도 考慮되어야 하겠다.

(註)

一、三國史記卷四、眞興王十四年春二月의 王命所司築新宮於月城東黃龍見其地

王疑之改爲佛寺賜號曰皇龍

이라는 記事와 三國遺事卷第三 皇龍寺丈六條에

新羅第二十四眞興王卽位十年癸酉二月將築紫宮於龍宮南有黃龍現其地乃改置

爲佛寺號黃龍寺

라 있다.

二、三國遺事에는 註一의 記錄에 繼續하여 至己丑年周圍瑞宇

라 있다. 己丑年은 眞興王三十年에 該當하나 三國史記卷四 眞興王二十

七年條에는

皇龍寺畢功

이라 있어 이 해는 丙戌年임으로 畢功을 「瑞宇」의 「完功」으로 부다면 무

슨 錯誤인듯하고 二國遺事에는 繼續하여

至十七年方畢

云云하였으니 「至十七年」을 「眞興王卽位十七年」으로 볼 수도 있고 着工年

인眞興王十四년부터 十七年을 經過한 卽 「眞興王卽位三十年」으로 볼 것

인지에 대해서는 眞興王三十年으로 본다면 이해는 곤 己丑年이 된다.

三、丈六像造成에 對하여는 三國遺事卷 第三皇龍寺丈六條에 尙상히 보인다.

造成年時는

以大建六年甲午三月鑄成丈六尊像

이라 있어 三國史記 卷四 眞興王三十五年春三月條의 記錄과 一致한다.

四、三國遺事 卷三 皇龍寺丈六條에

寺設云眞平王五年甲辰金堂造成

이라 있다.

五、九層塔初建에 關하여는 三國遺事卷第三、皇龍寺九層塔條에 자세한 記錄이

있어 그 年時도

善德王代眞觀十九年乙巳塔初成

이라 있어 三國史記의 記錄과 一致한다.

六、銅鍾에 關하여는 三國遺事卷第三、皇龍寺鍾條參照

高麗史에 皇龍寺塔에 關한 다음과 같은 記錄이 보인다.

慶州皇龍寺九層塔災(定宗四年十月乙卯)

皇龍寺九層塔災(光宗四年十月)

撤慶州朝遊宮以其材修皇龍寺塔(顯宗三年五月己巳)

東京皇龍寺塔災(獻宗元年六月戊寅)

命修東京皇龍寺塔(獻宗元年八月甲申)

八、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는 다음과 같이 「王幸」의 記錄이 있다.

王親幸皇龍寺(三國史記眞平王四十四年春正月)

幸黃龍寺看燈(同景文王六月春正月十五日)

皇龍寺齋僧設百高座講經王親幸聽之(同憲康王二年春二月)

設百座於皇龍寺親幸聽講(同定康王二年春正月)

設百座皇龍寺親幸聽法(同眞聖王元年)

幸皇龍寺看燈(同眞聖王四年春正月十五日)

第五十五景哀王卽位同光元年甲辰二月十九日皇龍寺設百座說經兼飯禪僧三百

人王親行香致供(三國遺事卷二景哀王)

九、三國遺事卷第一天賜玉帶條에

高麗王將謀伐羅乃曰新羅有三寶不可犯何謂也皇龍寺丈六尊像一其寺九層塔二

眞平王天賜玉帶三也

云云이라 있고 同卷第三皇龍寺九層塔條와 三國史記卷十二景明王五年春正

月條에도 三寶에 關한 記錄이 있다.

一〇、三國遺事卷三、皇龍寺九層塔條에

又高宗十六年戊戌冬月西山兵火塔寺丈六殿宇皆災

라 있다.

一一、藤島亥治郎·朝鮮建築史論 參照

一二、皇龍寺九層塔址에 있었던 民家는 一九六四年에 撤去되었다.

一三、盜難은 一九六四年十二月十七日에 있었고 거의 三年이 지난 一九六六年

十月十二日에舍利孔의 調査가 이루어져서 殘餘遺物이 收拾되었다. 一九六

七年一月에는 筆者에 依하여 同遺物이 다시 調査된 바 있었다. 拙稿「皇

龍寺塔址舍 舍利孔의 調査」(美術資料十一號一九六六、十二、國立博物館)參照

一四、藤島亥治郎·前掲書參照

一五、藤島亥治郎·前掲書參照

一六、講堂址作沓年時

一七、三國遺事卷四慈藏定律條에

又於皇龍寺……四衆成服其異

라 한 記錄은 講經이 講堂에서 이루어졌음을 明示한 例이다.

一八、佛國寺無說殿에도 皇龍寺講堂址에서와 같은 遺構가 있으나 이곳의 方形 遺構는 東쪽으로 一間 欠우쳐 있다.

龍門山上元寺의 遺蹟 遺物

金 和 英

龍門山 上元寺는 현재 京畿道 楊平郡 龍門面 延壽一里에 위치하고 있다. 龍門에서 下車하여 延壽一里를 지나면 龍門山麓에 두溪水가 이루는 三角 臺地위에 菩提寺址가 있고 다시 菩提寺址에서 溪谷을 따라 十里쯤 올라 가면 上元寺가 있다. 이 菩提寺址에서 日政期에 大鏡大師 玄機塔이 日本 商人에 의하여 서울로 搬出되어 ① 현재 梨花女子大學校에 移建되어 ② 있으며 同塔碑는 朝鮮總督府에 의해서 당시 總督府博物館으로 移建(현재의 景福宮)되었다. 현재 寺址 全域은 田畝으로 변하여 아무런 遺構를 찾을 수 없고 다만 耕作地에는 瓦片이 散在하고 있을 뿐이다. 이외에도 이곳 龍門山에는 龍門寺 潤筆菴址③등 古刹址가 있다. 그런데 上元寺에서는 日政期에 同寺의 銅鐘이 서울로 搬出되어 曹溪寺에 移安되었다고 傳하여 왔으며 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에도

此寺ニアリシ高麗時代梵鐘ハ今京城東本願寺說教場ニ懸ワ。優秀ノ作ナレドモ銘文ナキハ惜ムヘシ

라고 있다. 이 銅鐘은 朝鮮 梵鐘 중 특이한 양식이라 하여 日政末期에 寶物로 指定되었고 解放후에도 계속 國寶로 指定되어 保存되었으나 數次에 걸친 현지 踏査와 鍾의 양식으로 미루어 曹溪寺의 銅鐘은 韓國鍾이 아님이 밝혀지고 上元寺 銅鐘은 日本으로 搬出되었을 것이라고 推定되었다 ④. 筆者도 上元寺 銅鐘에 대한 調査次現地를 답사하였는데 ⑤ 현존하



圖 1. 龍門山上元寺 位置圖

는 建物은 事變후에 신축한 正面 三間 側面 二間의 法堂과 單間의 山神閣 및 寮舍 一棟이 있을 뿐이었는데 法堂 內에는 近來 造成된 石膏製佛像 二軀를 奉安하였다. 이밖에 境內에는 우수한 石造物 數點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보고는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에 있으나 매우 간단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上記한 기록을 검토하고 報告에 빠진것을 보충하여 上元寺의 遺蹟遺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여 널리 알리고자 한다.

二

上元寺에 대한 記錄은 高麗史에 비로소 나타난다. 즉 高麗史世家卷第 四顯宗一에

「元年春正月乙丑廢上元道場 閏二月甲子復燃燈會……」

라 있다. 그런데 上記한 上元道場이 龍門山 上元寺인지 이 記錄만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먼저 上元道場이 곧 龍門山 上元寺란 가설을 세우고 上元寺의 遺物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上元